

AI, 이제 대화만 하는 게 아닙니다

채팅에서 실행으로 — 에이전트 AI가 바꾸는 업무의 미래

2026년 2월 | 사내 세미나



지금 우리가 아는 AI

질문하면 답해주는 "전화 상담원"

- "... "이 데이터 어떻게 분석하면 될까?" → 방법을 알려줌
- "... "보고서 초안 써줘" → 텍스트를 생성해줌
- "... "이 표현 영어로 번역해줘" → 번역을 보여줌

핵심: AI가 말해주면, 실행은 내가 직접 한다
복사 → 붙여넣기 → 서식 정리 → 저장 → 공유... 🔍



이런 적 없으셨나요?

상황	채팅 AI의 한계
📁 "이 엑셀 파일 정리해줘"	파일을 직접 열 수 없음
📅 "내일 회의 잡아줘"	캘린더에 접근할 수 없음
✉️ "거래처에 메일 보내줘"	이메일을 보낼 수 없음
📋 "지난달 매출 뽑아줘"	데이터베이스 조회 불가

“ 결국 “방법은 알겠는데, 실행은 내가 해야 하잖아...” 😅 ”



에이전트 AI = 직접 일하는 AI

✗ 채팅 AI (지금)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텍스트로만 답변
- 한 번에 한 가지 질문
- 도구 사용 불가

✓ 에이전트 AI (진화)

-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 파일, 앱, 시스템 직접 조작
- 여러 단계를 스스로 판단·실행
- 도구를 조합해서 업무 완수



핵심 차이: "알려줄게" → "내가 해줄게"

AI가 도구를 사용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업무를 끝까지 처리



문서 & 데이터 처리

업무 시간의 40%를 차지하는 반복 작업



경영 보고 자료 취합

✗ Before

- 부서별 현황 엑셀 여러 개 수집
- 수동으로 데이터 취합·교차 검증
- 경영층 보고 양식에 맞춰 재정리
- 파워포인트로 도표·차트 제작
- ⏳ 약 3시간 소요

✓ After

- "이번 달 현황 보고서 정리해줘"
- AI가 파일 자동 수집·비교·취합
- 보고 양식에 맞춘 도표 자동 생성
- 이상치·변동 포인트 자동 하이라이트
- ⏳ 약 10분 소요

⌚ 약 95% 시간 절감



인력·조직 현황 분석

✗ Bef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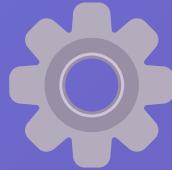
- 인사 시스템에서 데이터 추출
- 피벗테이블로 부서별·직급별 정리
- VLOOKUP으로 여러 시트 연결
- 분석 결과 해석·요약은 별도 작업
- ⏳ 반나절~하루

✓ After

- "부서별 인력 현황 분석해줘"
- 자연어로 질문하면 자동 분석
- 적합한 시각화 차트 자동 생성
- 증감 추이와 시사점까지 요약
- ⏳ 5~15분



약 90% 시간 절감



워크플로우 자동화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곳에만 사람이 개입



회의 준비 & 의사록 정리

✖ Before (다단계 수동)

- ① 지난 회의록에서 후속과제 확인
- ② 각 부서 담당자에게 진행상황 요청
- ③ 취합 후 안건별 자료 재구성
- ④ 회의 후 의사록 수기 정리
- ⑤ 결정사항·후속과제 배포
- ⌚ 회의당 2~3시간

✓ After (AI 자동화)

- ① 이전 회의록 기반 후속과제 자동 추적
- ② 진행상황 자동 취합·요약
- ③ 안건별 보고자료 초안 생성
- ④ 회의 녹취 → 의사록 자동 작성
- ⑤ 결정사항·담당자별 할당 자동 배포
- ⌚ 회의당 15~20분



약 85% 시간 절감

📢 임원 보좌 & 일정 관리

✗ Before

- 매일 아침 일정·안건 수동 확인
- 관련 부서 자료 개별 요청·취합
- 브리핑 자료 수동 작성
- 출장·미팅 후 후속조치 수기 관리
- ⏳ **매일 1~2시간**

✓ After

- AI가 일정 변동·신규 안건 자동 감지
- 관련 자료 자동 수집·요약
- 브리핑 메모 초안 자동 생성
- 후속과제 자동 트래킹·리마인드
- ⏳ **확인·수정만 10분**



주당 약 8시간 절감



일상 업무 생산성

조사 → 비교 → 정리 → 보고를 한번에

🔍 경쟁차 벤치마킹 자료 정리

✗ Before

- 경쟁차 리뷰·스펙 자료 수동 검색
- 제원·가격·옵션 항목별 수동 정리
- 비교표 엑셀로 직접 작성
- 분석 결과 보고서로 재구성
- ⏳ 2~3일 소요

✓ After

- "경쟁 모델 3종 비교 분석해줘"
- AI가 공개 자료 자동 수집·정리
- 항목별 비교표 + 강약점 자동 생성
- 위원회·보고용 초안까지 작성
- ⏳ 약 30분 소요

⌚ 약 95% 시간 절감



한눈에 비교: 채팅 AI vs 에이전트 AI

구분	💬 채팅 AI	🤖 에이전트 AI
비유	전화 상담원	신입 인턴
역할	질문에 답변	업무를 직접 수행
도구 사용	텍스트만 생성	파일·앱·시스템 조작
작업 범위	1회성 응답	다단계 업무 처리
결과물	텍스트 답변	완성된 산출물



에이전트 AI는 채팅 AI의 대체가 아닌 진화입니다.

실제로 비개발 직군 임원이 30개 시트 엑셀 재무모델을 **프롬프트 2~3개**로 자동 분석 시스템으로 전환 한 사례도!



이 변화, 얼마나 된 걸까?

"아직 아무도 준비 못 했습니다"

JUL
17

불과 3개월 전에 시작된 변화

시점	사건	의미
2025.11.24	Claude Opus 4.5 출시	에이전트 AI 성능이 실무 수준 돌파
2026.01.12	Claude Cowork 공개	비개발자도 에이전트 AI 사용 가능
2026.01~02	뉴욕 증시 SaaS 폭락	Salesforce -14%, Adobe 5년 저점
지금	대부분의 직장인	아직 채팅 AI만 사용 중

🔑 3개월 만에 기술 → 제품 → 시장 충격까지 연쇄 발생
지금 시작하면 늦은 게 아니라, 오히려 빠른 편입니다



월가가 먼저 반응했다

"AI가 기존 소프트웨어를 대체한다" — SaaSpocalypse

- 나스닥 100: 2주 만에 시가총액 1조 달러 증발
- Salesforce(CRM): 일주일 만에 -14%, 2023년 수준 복귀
- Adobe: 5년 만의 최저점 (2019년 수준)
- HubSpot -39%, Figma -40%, Atlassian -35%

주가 폭락의 이유: AI 에이전트가 사람이 소프트웨어로 하던 일을 직접 처리
→ 기존 SaaS 도구의 존재 이유 자체에 의문이 생긴 것



현실적 고려사항



기대만큼 중요한 주의점

- **사람의 감독은 필수**

AI가 처리한 결과는 반드시 사람이 검토·승인

- **100% 완벽하지 않음**

특히 숫자, 날짜, 고유명사는 꼭 확인 필요

- **보안과 권한 관리**

민감한 데이터 접근 범위를 명확히 설정

- **AI 활용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적극 활용하는 팀과 기본 채팅만 쓰는 팀의 생산성 차이가 급격히 확대 중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

- 1 관찰하기 — 이번 주 내 업무 중 "이거 반복이다" 싶은 작업 3개 적기
- 2 실험하기 — 그중 가장 간단한 1개를 AI 도구로 시도해보기
- 3 공유하기 — 결과를 팀에 공유하고, 함께 확장할 업무 찾기

“ “지금 두 가지 유형의 AI 사용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도구로 활용하는 사람과, 채팅에 머무는 사람.
그 격차는 이미 벌어지고 있고, 중요한 건 시작하려는 의지입니다.”

”